



## 혈액투석 대상자의 직장생활 경험\*

박민선<sup>1)</sup> · 김미영<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만성질환의 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성질환 중에서도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은 인구 백만 명 당 말기 신질환 환자수가 1,000명에 근접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10위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Korean Society of Nephrology, Registry Committee, 2005).

말기 신질환 대상자의 치료로 혈액투석은 임상적 증상이나 신체적 안녕의 향상을 가져왔으나(Choi et al., 2006) 이는 치유법이 아니라 말기 신질환 대상자들에 대한 신장 기능 대치 방안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1회 4시간가량 소요되는 투석을 1주일에 3~4회씩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며 (Suet-Ching, 2001), 투석을 적응하기까지 신체상의 변화뿐 아니라 재정손실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Welch & Austin, 2001). 이와 같이 혈액투석 대상자들은 오랜 투석기간으로 인하여 저하된 직업능력과 투석치료를 위한 시간확보의 어려움, 심리적 위축감, 사회 전반의 인식부족 등으로 직업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Davison & Simpson, 2006).

홍콩에서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50명 중 24명인 48%가 신체적 제한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보고하였다(Mok & Tam, 2001). 국내에서도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실업률이 28.4%인 것에 비해 신장 장애인의 실업률은 50.2%로 높게 나타났다(Bok, 2004). 이와 같이 투석 치료 환자의 대다수가 질환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불평등과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월 소득의 절반가량을 투병생활에 지출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으며, 신체적 고통보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지금까지 국외에서의 혈액투석 관련 연구들은 혈액투석 대상자들의 삶의 질, 적응,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기전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개인적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연구들이었다(Polaschek, 2003). 이러한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혈액투석 대상자의 간호요구 (Cho et al., 1999)와 혈액투석 경험에 대한 연구(Kim, 2005), 신장이식에 관한 연구(Yi, 1998) 등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들은 숫자적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투석치료를 받는 동안 신체기능 약화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며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한 시간배정 등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기 쉽다(Bok, 2004)는 주장에 비해 지금까지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경제적 측면은 간호학에서 잘 다루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투석의 장기적인 치료적 특성으로 인해 혈액투석 대상자의 고용과 경제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어 : 혈액투석, 직장, 질적연구

\* 이 논문은 제 1저자 박민선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1) 남양주한양병원 인공신장실 수간호사

2)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mykim0808@ewha.ac.kr)

접수일: 2009년 11월 29일 1차 수정일: 2010년 1월 22일 2차 수정일: 2010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25일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대상자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경험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은 인간경험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간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Shin, Cho, & Yang, 2004). 또한 Colaizzi (1978)의 연구방법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관심 현상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Kim et al., 1999)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장생활과 혈액투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당면할 수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혈액투석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간파해 온 중요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경험한 진술을 토대로 하여 투석 치료와 직장생활의 양립 경험과 갈등을 이해하고, 혈액투석 치료와 직장 생활의 적응과 병행을 돋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혈액투석 대상자의 직장생활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장인 혈액투석 대상자의 직장생활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말기 신질환 진단을 받고 경기도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자로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 양립 경험에 대하여 생생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정신병력이 없으며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서 총 10명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참여자가 소속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 내용에 있어서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필요 시 어느 때라도 참여자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기술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후에는 참여자가 면담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연구자가 선정한 병원에서는 혈액투석 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은 없어서 여성 참여자는 선정하지 못하였다.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6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10명 모두 기혼이었다. 투석 치료 기간은 3년 미만이 9명, 1년 미만이 1명이었으며, 직업의 형태는 자영업이 4명, 공무원 2명, 기타 직업으로 교사, 회사원, 방송 스태프, 영업사원이 각각 1명씩이었다. 투석 치료 전부터 계속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8명이었으며, 참여자의 투석 치료 시간은 저녁 시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였다. 면담은 혈액투석이 끝난 후 참여자가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는 혈액투석실 내의 상담실을 이용하였다. 연구자 중 한 명은 면담을 처음 시도하였기 때문에 1차 면담에서는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면서 주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차 면담에서는 자료분석 결과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조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면담질문은 참여자의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였다. 평균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10분이었으며, 2차 면담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시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선택적 질문을 하였으며, 평균 면담 시간은 20분 소요되었다. 한 사람 당 1~2회의 면대면 면담을 가졌으며 16회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였다. 이 중 2회의 면담은 질적 자료의 깊이를 보완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를 정련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진행하였다. 연구과정 중 판단중지를 위해 연구자들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가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장, 신념 등을 일단 보류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자료수집이나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헌고찰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 실시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순환적으로 시행하였

다. 가령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전의 자료에서 추출한 개념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이전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이전의 자료분석 결과를 다음의 자료수집에 반영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6단계의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원자료의 필사작업이 완료된 후에 자료로부터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모든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어나가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출단위 분석을 통해 구, 문장에 밀줄을 그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을 도출하였다. “투석을 하면서부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았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아마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직장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죠.” 셋째,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참여자의 상기 진술에 대해 ‘투석만 하는 삶은 의미가 없음’의 일반적인 진술로 재진술하였다. 넷째, 상기의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는 단계에서 참여자는 ‘투석만 하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을 병립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가 없다는 의미였으며, 그 유사한 진술로 ‘일을 놓으면 떳떳하지 못함’의 의미와 함께 ‘직장생활을 통한 자존심 유지’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체모음, 범주의 단계로서 ‘투석만 하는 삶은 의미가 없음’, ‘직장생활을 통한 자존심 유지’, ‘직장생활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갖게 함’의 단계로 조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완전한 기술로 수집된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985)의 연구의 신빙성(사실적 가치), 중립성, 적용성(적합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신빙성에 있어서는 경험에 대한 기술 내용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참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자료와 자료 분석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중립성을 위해서 면담 시에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엄격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은 혈액투석실에 오랫동안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때로는 그러한 경험이 분석

가로서 자료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Guba와 Lincoln (1998)도 연구자 자신의 특별한 패러다임인 견해, 훈련, 지식, 편견 등이 연구 상황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연구자들 간에 8차례의 만남을 통해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료수집 전, 자료 분석 동안, 결과 기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영적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그리고 연구결과를 읽고 제 3자가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고 적용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적합성에 있어서는 참여자가 아닌 혈액투석과 직장생활을 병용하는 제 3자에게 찾아가서 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연구결과를 수긍하고 공감함을 알 수 있었다.

## 연구 결과

### 혈액투석 대상자의 직장생활 경험의 본질적 구조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투석 대상자의 직장생활 경험은 5가지의 본질적 구조를 나타냈다(Table 1): ‘자신의 존재 가치 인식’, ‘일보다 건강이 우선’,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업무의 한계 인식’, ‘시간 관리의 어려움’, 즉 혈액투석 대상자에게 직장생활을 갖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일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며, 가정을 지켜야 하는 임무이자 도리였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직장생활을 가질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에게 떳떳할 수 있으며 스스로 나태함을 막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 줌으로써 직장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체적 피로와 제한된 투석 시간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을 감당하는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업무에 대한 한계’와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신체적인 한계와 외모상의 변화로 주변 사람과 어울리는 모임을 자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배려가 부담스러워 남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업무를 보상함으로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주위 사람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자 하였다. 혈액투석 대상자는 투석을 평생 해야 하는 현실을 수긍하며, 후회스러운 지난날의 대가로 인식하였다. 무엇보다 미래의 삶을 구상하기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히 하므로 욕심을 갖지 않고 두 번 다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오로지 건강관리에 전념할 뿐이었다. ‘일보다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여건이 되면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주일에 3회, 하루에 1/3을 투석시간으로 보내고 나면 투석 이외의 건강관리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으며,

Table 1. Work Experience of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Themes	Theme-cluster	Category
-Physical pain not compromising status and responsibility as the head of my family -Duty to take care of family -Concerns for the future of family -Financial challenges in affording hemodialysis -Financial needs being the driver of need to work -Being the only family member to bring bread and butter home -Pure dependence on hemodialysis to go on stripping any meaning out of one's life -Unemployment translating into disgrace -Employment as a source of mental comfort -Unemployment no better than a life in prison -Lowering standard of comparison in relative terms -Reluctance to make too ambitious plans -Finding satisfaction in status quo -Concern for the aftermath of hemodialysis keeping one on pins and needles -Hemodialysis taking priority over one's work -Avoidance of physically challenging jobs in advance -Desire to trade job with exclusive focus on health care -Support from people around me help me go on -Reality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future -Maintaining status quo being the utmost priority -Reluctance to hang around with others -Change in one's outlook, discouraging one from socializing with others -Loneliness resulting from the breakdown of relationship with people who matter -Hollow feeling in the aftermath of changes following hemodialysis -Tendency to keep dependence on hemodialysis a secret -Feeling of self-accusation getting in the way of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t work -Fear that others may treat me as a patient -Hemodialysis bleeding concerns about the way others perceive me -Pretending not to yield to physical fatigue -Feeling as if others are asking me, 'Can you keep working with your health as it is?' -Desire to work in step with others, if not better -Commitment to finishing pending jobs on days when not receiving hemodialysis -Objection to impression that hemodialysis compromises one's work productivity -Physical fatigue eating into one's motivation for work -Dwindling self-confidence about my work -Taking breaks frequently at work -Hemodialysis interrupting one's work -Difficulties in planning work because of need for hemodialysis -Taking time off for hemodialysis frequently disrupts work rhythm -Taking hemodialysis alone is challenging for me -Little time being left for health management other than hemodialysis -When I receive hemodialysis, spending a whole day on it -Hemodialysis keeping one from making an appointments that require long-distance trips for personal or business reasons -Living every moment of my life diligently in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ime -Planning by the minute rather than the hour -Desire to find time the window for hemodialysis that is least disruptive of other personal activities -Desire to receive hemodialysis in the morning to have the afternoon free for other activities -Need for flexible hemodialysis schedule not to compromise work schedule	Commitment to family Means of living Work being a source of self-esteem Moderation Full dedication to health Keeping things as they are paying off the most Dwindling scope of human relationship Being afraid of stigma Too much care making me uncomfortable Compensating by working harder Decline in work productivity Awareness of limitation at work Interruption of work schedule Constraints in personal life Difficulty with time Utilization of spare time management Need for flexible hemodialysis schedule	My health comes before my work

혈액투석 대상자에게 '시간 관리의 어려움'은 시간 단위가 아닌 분과 초를 다루는 투쟁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병원에서의 혈액투석시간의 단력적인 운영은 장기적으로 혈액투석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었다.

● 범주 1. 자신의 존재 가치 인식

참여자들이 혈액투석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 인식'을 한다는 것은 '생계유지 수단', '가족에 대한 책임감', '직장생활을 통한 자존심 유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혈액투석 대상자에게 직장생활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경제적인 이유와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직장생활을 유지함이었다. 이는 경제적인 소득이 없다면 투석치료와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몸이 아파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작년에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이 많이 나아졌죠 투석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한 달이면 50~60만원 들거든요 돈을 벌어도 생활이 힘들었는데 직장생활 안하고 투석만 받을 순 없을걸요

내가 투석을 한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가족들한테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가족들과도 서먹해 지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 중에 후배가 투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족들한테 힘들다고 짜증만 내더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더라고요 그러니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 식구들이나 흘러졌어요 가족에게든 주위 사람들에게든 마음의 문을 열고 밝게 대해야 해요

그러나 참여자 중에는 경제적 여건이 됨에도 일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참여로 자기 존재감과 자아 만족감이 향상되고, 일과 투석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고 투석치료만 받는 것보다 뛰어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자체는 감옥과 같은 생활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혈액투석 대상자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경제적 이유 이외에 심리적 안정을 얻고 투석치료로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투석 시작하고 직장을 그만 뒀었거든요 처음에는 투석만 받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차차 투석에 적응이 되고 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안다니니까 내가 참 초라해 지더라고요 한심해 보이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내가 이리다 죽는건가 싶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죽은 송장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좋아요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뛰어졌다는 게 좋더라고요

#### ● 범주 2. 일보다 건강이 우선

참여자들은 마음으로는 일이 우선이지만 몸으로의 실행은

건강이 우선이라는 양가감정을 나타냈다. 이는 직장생활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전념한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여건이 된다면 일은 쉬고 투석치료만 받기를 원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미래보다 현실에 충실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약을 적시에 복용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 수준을 낮추고 무리한 계획을 삼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에게 일과 치료 모두 중요한 부분이지만, 건강해야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건강 관리에 전념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현실에 충실하겠다는 신념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일보다 건강이 우선' 주제는 '건강관리에 전념함', '욕심 부리지 않음', '현상유지가 최고'의 의미를 나타냈다.

마음은 일이 우선인데 실질적으로는 병원과 관련한 일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약 먹는 것부터 차례대로 먹어야 하니까요 어떤 때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가요 솔직히 여건이 된다면 일은 그만 두고 싶어요 지금이 야 먹고 살아야 해서 일을 하지만 몸이 힘들거든요 투석만 받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더 신경도 쓰고

투석을 한지 2년 정도 지나면 몸 상태가 느껴져요 몸이 상태를 알려 줘요 먹지 말라고 되게 힘들 때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바늘만 꽂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요 투석만 하면 몸 상태는 괜찮아 지니까 병원만 오면 마음도 몸도 안정이 되요

절대 욕심을 갖지 않아요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남과 경쟁을 하거나 우위를 가지려는 태도는 없어요 신장이 오랫동안 망가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중요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 ● 범주 3. 낙인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혈액투석 치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모상신체상의 변화로 투석 후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고립되는 느낌을 경험하였지만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배려가 부담스럽기도 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투석치료 이외의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함은 투석치료 받느라 일 못한다는 선입견을 의식한 태도였다. 이와 같이 투석환자에 대한 낙인의 두려움은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짐', '지나친 배려가 부담스러움', '더

열심히 일함으로 보상'의 의미로 구성되었다.

투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모적 변화와 시간경제적 제한과 식이 및 수분 조절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점차 친구, 이웃과도 소홀해지는 위축과 고립감으로 나타났다. 주위에서 '투석환자'라는 것을 알고 배려를 해주지만, 때로는 지나친 배려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며 그 또한 선입견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사람들 만나는 것 힘들어오 처음에는 소변도 나오고 얼굴도 안 붓고 하지만 만약에 점점 소변량이 줄어들면 거의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식사를 많이 했다. 거래처 손님 만나서 많이 먹었다. 정말 술 한 잔 먹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얼굴 부어서 일반적인 미팅도 못해요 사람들 만나기 힘들자요 외모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투석받는 거 거의 알죠 저는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배려가 부담이 되요 지나친 배려도 편견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지나친 배려가 '너 그 봄으로 일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것 같아 느껴져요

헬액투석 환자는 '장애인'이나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투석치료 하는 것을 숨기고, 병든 자신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의식이 있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업무에 있어서 남보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남처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투석하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어오 현재 사회적으로 투석환자라고 하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남한테 폐만 끼치는 줄 안다니까요 천대하고 거리감을 뒤요 저도 예전에 아프기 전에 그랬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 일도 하기 힘들어져요 일거리가 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 제가 투석하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 ● 범주 4. 업무의 한계 인식

참여자들은 헬액투석의 합병증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일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이전에 비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중간에 자주 쉬며, 몸이 견딜 수 있는 제한된 업무량만 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많은 업무량을 보면 주눅이 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자신감이 저하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게다가 일주일에 3회 투석치료 시간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정기적인 투석 횟수로 인해 일의 리듬이 깨져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등 계획적인 업무의 차질을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 '계획적인 업무의 차질'은 '업무의 한계 인식'의 주제로 묶여졌다. 참여자들은 업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투석 이전과 투석 이후의 업무량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참여자의 경우 업무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오 일에 대해 물두하는 거나 성취감이나 성격이 리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뒤로 빠져 오 전체적으로 매가리가 없어졌지 거래처 미팅가면 다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일 들어오는 물량이 크다 그러면 겹부터 나오 할 수 있을까 평범한 것도 전에는 우습게 했던 일들도 지금은 좀 힘들게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4시간 투석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에 2/3 이상 뺏어 간다고 보면 되요 만약에 한 이틀 투석하고 3, 4일 일하면 괜찮을 텐데 월 수, 금 격일로 투석하니까 일에 대한 리듬이 깨지죠 흐름을 못타니까 그래서 점심만 먹어도 이제 뭘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화, 목, 토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그게 어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시간 된다고 오늘 다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 입장도 있고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이 된다고 일을 물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 범주 5. 시간 관리의 어려움

참여자들이 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의 병행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석을 잘 받는 것도 벽찬 상태이어서 투석 이외의 건강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시간 관리의 어려움으로 연계되어 '제한된 개인생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함', '탄력적인 투석시간대를 원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헬액투석을 받기 위해 1주일에 3~4일을, 하루에 6~8시간씩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시간 단위가 아닌 분과 초를 다루는 생활을 하게 되어 운동이나 취미 같은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제한된 시간 관리는 평생 짚어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투석실 운영시간을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으로 운영해 주기를 원하였다. 가령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늦은 밤 시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 또는 24시간 투석실의 운영 등 의료기관에서 헬액투석 대상자의 시간에 맞추어 주는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였다.

투석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간관리예요 투석을 하면서 시간관념이 철두철미해졌어요 투석하려면 직장에서 오후 4시에는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일이 4시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석인하는 날에는 일을 몰아서 하죠 약속도 저녁시간에는 투석 때문에 일부러 안잡고 주로 점심시간에 약속잡고 직장생활을 하면 투석 시간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탈되기 쉽고

투석을 24시간 한다거나 하는 병원이 생기면 참 좋겠네요 모임도 참여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잘 할 수도 있고 마음 같아서는 월 수 급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금같이 야간투석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월요일에 모임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화요일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월요일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하며는 직장을 쉬더라도 와요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시간으로 인한 시간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의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바꾸거나 또는 투석치료 시간의 변경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러한 시도는 투석치료와 직장생활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결국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몸이 안따라 주니까 불만이지 뭐 미팅 약속을 하는데 수요일 오전에 만나자고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투석을 바꿔가면서 해봤어요 아침에 약속 있으면 투석을 오후에 하고 오후에 약속이 생기면 투석을 오전에 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양해를 해줘서 투석을 했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투석 받을 때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새벽 4시에 투석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 논 의

본 연구는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참여자의 진술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혈액투석 대상자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도 건강의 균형이 깨질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직장생활을 부담스러워하는 양가감정을 드러냈다.

혈액투석 대상자들에게 직장 생활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이유였다. Lee (2008)의 조사에서 혈액투석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치료의 번거로움이나 신체적 고통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 평균소득 104만원 중 57만원이 치료에 쓰인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인 관심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압도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Hagren, Pettersen, Severinsson, Lützén, & Clyne, 2005)는 의미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는 국내-

외적으로 공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홍콩에서 조사한 혈액투석 환자의 경제적 비용은 생활비와 혈액투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사회적 접대에 필요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Suet-Ching, 2001). 즉 직장생활을 갖는 것은 평생 이루어지는 투석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출과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불가피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혈액투석 대상자에게 직업은 경제적 목적 이외에 자존감을 높여 줌으로써 자기 존재의 이유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직업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다고 하는 긍정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는 직업이 있는 혈액투석 대상자는 우울감소와 정신적 건강증진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Theorell, Konarski-Svensson, Ahlmén, & Perski, 1991)를 뒷받침한다. 또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71명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연구(Choi, 2007)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7명이 실직상태에 있는 24명보다 더 오래 생존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생명연장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직업은 생명의 연장, 삶의 질 회복의 의미를 가지므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혈액투석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Kaba et al., 2007), White와 Grenyer (Tanyi & Werner, 2008에 인용됨)는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증상으로 신체이미지의 왜곡, 자아존중감의 저하, 무력감, 의료인에 대한 의존, 때로는 의미있는 사람과의 긴장된 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화된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혐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Limdvist, Carlsson, & Sjödén, 2000).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석환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위안을 통해 현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전략을 이용하고 현재의 자신보다 여전이 나쁜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스스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즐겁게 살아 나가고자 하였다. 이는 직장인 혈액투석 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심리적 정서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Park & Kim, 2003)를 지지하며, 직장생활이 무엇보다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석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시간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Hagren 등(2005)은 스웨덴에 있는 혈액투석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들이 제한된 시간 관리를 위해 시간뿐 아니라 공간적인 존재론적 투쟁을 한다고 표현하였으며, Kaba 등(2007)은

그리스의 투석환자들이 투석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적인 어려움은 적응을 해야 하는 고통으로 체시하였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의 고통은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보낸 시간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간문제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적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Hagren, Pettersen, Severinsson, Lützén, & Clyne, 2001). 이와 같이 혈액투석 대상자에게 시간관리는 적응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시간관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방안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이는 혈액투석 치료시간이 그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중요한 일상적인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혈액투석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투석 시간대를 원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투석실 운영 시간이 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의 경우, 7시 이전의 새벽시간이나 7시 이후의 밤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과 동일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조정을 의미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에 있는 600여개의 혈액투석 병원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대상자들이 어디에서나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되고 타 지역에서도 불안감 없이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다면 직장에서의 출장이나 여행도 가능하여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혈액투석 대상자들에게 혈액투석기계는 생명줄(Hagren et al., 2001)과 같다. 본 연구에서도 혈액투석을 받을 때 마음이 가장 안정이 된다는 표현을 통해 ‘일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맥락적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혈액투석 대상자들의 대인관계가 정상적인 일상생활 역할과 활동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며(Cleary & Drennan, 2005), 대인관계의 제한을 ‘의도적인 고립’으로 명명한 연구(Lee, Lin, Chaboyer, Chiang, & Hung, 2007)에서 제시한 의미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소홀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대인관계의 제한을 느끼는 것은 궁정이나 부정적인 차원으로 단순히 해석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 초기에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혈액투석대상자들이 희망을 갖고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들의 격려와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의료인의 초기 대응과 태도가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영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간호사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의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간호연구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혈액투석 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서 대상자의 견해를 통

해 직장생활 경험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직장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간호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간호사들은 혈액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울러 혈액투석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간호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 간, 병원 간에 혈액투석 환자들의 정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측면과 혈액투석실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혈액투석 대상자의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을 이용하여 혈액투석 대상자들의 직장생활 경험을 기술하고, 혈액투석 치료와 직장 생활의 적응과 병행을 돋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말기 신질환 진단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10명의 혈액투석 대상자로서 모두 남성들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10분이었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혈액투석치료와 직장생활을 양립하면서 느끼는 본질적 의미는 5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자신의 존재 가치 인식’, ‘일보다 건강이 우선’,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업무의 한계 인식’, ‘시간 관리의 어려움.’ 혈액투석 대상자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도 건강의 균형이 깨질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직장생활을 부담스러워하는 양가감정을 드러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단, 장기적인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탄력적인 혈액투석 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의미있는 현상이나 개념들을 중심으로 직장인 혈액투석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구조화된 후속연구와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ok, C. H. (2004). A study of factors on employment of people with renal transplantation. *Disability & Employment*, 14(3), 18-35.
- Cho, C. H., Woo, H. J., Cho, Y. S., Choi, Y. O., Kim, M. S., Lee, E. H., et al. (1999). The needs for the nursing care in hemodialysis patients.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3(2), 59-72.
- Choi, S. H., Baek, K. H., Lim, H. B., Lee, J. Y., Kim, H. J., & Kim, Y. S., et al. (2006). The effect of warm and ice application for pain control caused by arteriovenous fistular needling under hemodialysi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1), 179-189.
- Choi, S. Y.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maintenance of people with renal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leary, J., & Drennan, J. (2005). Quality of life of patients on haemodialysis for end-stage renal disea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6), 577-586.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on, S. N., & Simpson, C. (2006). Hope and advance care planning in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qualitative interview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33(7574), 886-890.
- Guba, E. G., & Lincoln, Y. S. (1998).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landscape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s Oaks, CA: Sage.
- Hagren, B., Pettersen, I. M., Severinsson, E., Lützén, K., & Clyne, N. (2001). The haemodialysis machine as a lifeline: experiences of suffering from end-stage renal disea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2), 196-202.
- Hagren, B., Pettersen, I. M., Severinsson, E., Lützén, K., & Clyne, N. (2005). Maintenance haemodialysis: Patients' experiences of their life situat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3), 294-300.
- Kaba, E., Bellou, P., Lordanou, P., Andrea, S., Kyritsi, E., Gerogianni, G., et al. (2007). Problems experienced by haemodialysis patients in Greece. *British Journal of Nursing*, 16(14), 868-872.
-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Kim, H. B. (2005). A study on caring experience from their spouses perceived by hemodialysis patients: A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8(2), 157-164.
-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Registry Committee. (2005).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24(2), S367-S395.
- Lee, B. O., Lin, C. C., Chaboyer, W., Chiang, C. L., & Hung, C. C. (2007). The fatigue experience of haemodialysis patients in Taiw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6(2), 407-413.
- Lee, J. H. (2008, May 16). End of stage renal disease patient has financial difficulties. *KBS news web site*, Retrieved April 7, from <http://news.kbs.co.kr/science/2008/05/16/1561683.html>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mdvqvist, R., Carlsson, M., & Sjödén, P. O. (2000). Perceived consequences of being a renal failure patient. *Nephrology Nursing Journal*, 27(3), 291-297.
- Mok, E., & Tam, B. (2001). Stressors and coping methods among chronic haemodialysis pati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0(4), 503-511.
- Park, S. D., & Kim S. J. (2003). A study on employment status and needs of people with renal disease.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41, 179-200.
- Polaschek, N. (2003). The experience of living on dialysis: a literature review. *Nephrology Nursing Journal*, 30(3), 303-313.
- Shin, K. R., Cho, M. O., &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Suet-Ching, W. L. (2001). The quality of life for Hong Kong dialysis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2), 218-227.
- Tanyi, R. A., & Werner, J. S. (2008). Women's experience of spirituality within end-stage renal disease and hemodialysis. *Clinical Nursing Research*, 17(1), 32-49.
- Theorell, T., Konarski-Svensson, J. K., Ahlmén, J., & Perski, A. (1991). The role of paid work in Swedish chronic dialysis patient-a nation-wide survey: paid work and dialysis.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30(6), 501-509.
- Welch, J. L., & Austin, J. K. (2001). Stressors, coping and depression in ha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3(2), 200-207.
- Yi, M. (1998). Psychosocial adjustment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291-302.

## Work Experience of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Park, Minsun<sup>1)</sup> · Kim, Miyoung<sup>2)</sup>

1) Head Nurse, Artificial Kidney Unit, Namyang-Ju Hanyang Hospital

2) Full-time Lecture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gain understanding of what career and related experience mean to individuals undergoing hemodialysis. **Methods:** Ten male patients receiving hemodialysi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collection took place between November 18, 2008 and February 10, 2010, via unstructured interview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and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1978) was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significance the participants found in their "dual" life as worker and dialysis patients wa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Recognition of self-existence value', 'My health comes before my work', 'Being afraid of stigma', 'Limitation of restricted work', and 'Difficulty with time management.'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dialysis patients showed ambivalent feelings towards their careers, hoping they will be able to continue to work yet fearing that the continued work might break balance the between their livelihood and heal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hours for hemodialysis be more flexible to ensure that patients can keep their jobs and better manage their time while undergoing treatment.

**Key words :** Hemodialysis, Work, Qualitative research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iyo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6694 C.P.: 82-10-6470-4092 Fax: 82-2-3277-2850 E-mail: mykim0808@ewha.ac.kr